

# 모두 말씀

2021. 5. 24.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

※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❶TCFD\* 지지 선언과  
❷그린금융 협의회 출범을 위해 모여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지난 한 해  
유럽과 아시아의 평균기온은  
111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Global Climate Report 2020"

이상기후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금융권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전 세계적인 과제에서  
선제적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 기후리스크 대응 관련 국내외 동향

최근 EU는 녹색분류체계(taxonomy)를 통해  
녹색산업 지원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기후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탈 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3. TCFD 지지선언과 그 의의

금융당국도

기후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녹색금융을 위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 간  
글로벌 협의체인 NGFS\*에 가입신청을 하였습니다.

\* The Network of Central Banks and Supervisors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그리고 오늘 금융위원회는

13개 금융유관기관\*과 함께  
TCFD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 금감원 예보 산은 수은 예탁원 금결원 주금공 캄코 증금 신보 기보 무보 성장금융

TCFD는 파리기후협약을 계기로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출범한 글로벌 협의체로서,

2017년 공개 권고안을 발표하여  
기후리스크에 대한 정보공시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78개국 약 2,000여개 이상의 기관이  
TCFD와 권고안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였으며,

국내에서도 환경부와 26개 금융유관기관\*을 비롯해  
총 44개 기관이 선언에 동참하였습니다.

\*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주요 금융지주회사 등

TCFD 권고안은 ①지배구조, ②전략, ③위험관리 및  
④관리지표와 감축 목표치 등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및 금융회사들이 기후리스크를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자와 이해관계자 등이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기관들은  
이 권고안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4. 녹색금융 추진계획

정부도 오늘 지지선언을 모멘텀으로  
녹색금융 실천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선, 녹색금융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추진체계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금융위원회와 7개 금융유관기관\*이 모여  
「그린금융 협의회」를 출범하기로 하였습니다.

\* 산은, 기은, 수은, 거래소, 신보, 기보, 무보

협의회를 통해  
녹색분야 정책자금 지원전략을 논의하는 등  
녹색산업 전반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정책금융 지원의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에 자생적 녹색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금융위는 환경부·산업부와 함께  
6월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하고  
하반기 중 금융권에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융권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원칙을 담은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기준’과  
기후리스크를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도 3분기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ESG 정보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ESG 통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녹색금융 관련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5. 마무리 말씀

오는 5월30일과 31일에는  
'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환경분야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상회의 일환으로  
'녹색금융 특별세션'을 개최(5.29일)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녹색회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후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글로벌 논의에 적극 동참하는 등  
우리 금융권도 보다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TCFD 지지선언과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 금융권의 녹색금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